

A-7.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에 대한 후향적 연구

최현숙, 정현주, 김옥수, 김영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임플란트주위 골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임플란트의 성공과 장기간의 예후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연구방법 및 재료

이번 연구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 치주과에서 식립하여 보철 수복한 432개(174명) 중 임플란트 지대주 연결수복 후 연속적인 방사선 사진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는 194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얻어진 방사선 사진을 평판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Image analyzer(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로 각각 근원심 골수준을 측정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 2차 수술 후, 3개월, 6개월, 1년째, 그리고 그 후 각 1년마다 골소실량을 산출하여 통계처리하여 다음과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

1. 식립된 432개의 임플란트는 3개월~ 8년간(평균 29개월) 96.3%의 생존율을 보였다.
2. 194개의 임플란트 중 구치부가 160개(82.5%), 하악에 116개(59.8%)이었다.
3. 1차 수술과 2차수술 사이에는 골소실이 거의 없었고, 지대주 연결후 첫 3개월 동안에 골소실이 크게 나타났으며 첫 1년 동안의 골소실 평균량은 $0.86 \pm 0.92\text{mm}$ 였다.
4. 보철 수복 후 1년 이후 매년 골소실량 평균은 $0.5 \pm 0.68\text{mm}$, 전체 추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0.94 \pm 0.98\text{mm}$ 로 나타났다.
6. 근심과 원심 각 골소실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이 연구결과 임플란트 주위골의 변화는 지대주 연결 후 3개월 가장 심하였고 관찰기 동안의 골변화량은 개개 임플란트에 따라 변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간의 결과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간격의 방사선 사진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